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작품연구논문

## 운동을 통한 역동적 이미지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룡 호

# 운동을 통한 역동적 이미지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룡 호

# 인 준 서

김룡호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예술가는 현실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주변의 경험과 관계들로 자기 내면의 살아있는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원시켜 스스로의 작품을 표현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자신의 본능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삶을 살아가며 자연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본인은 자연을 움직이는 그 근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 근원이 축적과 발산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풀이를 시도해볼 때, 그 끊임없이 연장되는 에너지 자체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 본인의 작품은 에너지의 근원적인 힘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의 모습 중 운동 에너지를 우선하여 제작하게 되었다. 인간 스스로가 발산해내는 에너지 중 운동이라는 행위로 기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아닌 원초적인 힘을 작품에 담아보려고 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 발표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제작배경과 표현 방법을 연구, 분석한 것으로 ‘운동’이란 행위를 형상화시키고 또한 ‘운동’으로 인해 느껴지는 에너지를 금속선의 흐름으로 표현하였다. ‘역동의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연구하였으며 선을 용접하여 역동적인 에너지의 표현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운동에너지와 선을 통한 속도감과 작품의 조형적 특성에 관해 서술하고, 인체형상을 통하여 역동적인 형태를 표현하고 스테인리스스틸 용접표현을 연구 분석 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에 대한 연구 과제를 서술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의 형성배경 .....	3
1) 운동에너지-기(氣) .....	3
2) 선의 시간성과 속도감 .....	4
2. 작품의 표현방법 .....	7
1) 인체형상 .....	7
2) 스테인리스스틸 용접표현 .....	8
3. 작품 분석 .....	11
III. 결 론 .....	25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Energy-swimming1/ 184x28x28cm/ stainless steel/ 2015 ..... 11
- 【작품 2】 Energy-weight lifting/ 63x17x54cm/ stainless steel/ 2015 ..... 13
- 【작품 3】 Energy/ 257x45x125cm/ stainless steel/ 2015 ..... 15
- 【작품 4】 Energy-foot/ 11x20x60cm/ stainless steel/ 2015 ..... 17
- 【작품 5】 Energy-running/ 100x30x64cm/ stainless steel/ 2015 ..... 19
- 【작품 6】 Energy-swimming2/ 42x9x124cm/ stainless steel/ 2015 ..... 21
- 【작품 7】 Energy-boxing/ 39x30x86cm/ stainless steel/ 2015 ..... 23

# I. 서론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가장 원초적인 운동에 의해 발산된다.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서 뿔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경이롭다. 본인은 잠재되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발현되는 그 힘을 인간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어린 시절 병약하여 잦은 질병과 씨름하며 성장하였기에 원초적 에너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체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 갈망은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졌고 점차 그 에너지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강하게 축적되는 에너지와 건강해지는 몸 상태를 발견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작업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표현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 점이 움직이면서 선이 되고 선들이 이어지면서 면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종일관 존재하는 '운동'에 집중한다. 운동이라는 이미지로 잠재되어 있다가 발현되는 힘 그리고 그 힘에 의한 어떠한 움직임 그러한 과정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진화되어 가는 조형예술의 그것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한 땀 한 땀의 용접(점), 한 가닥 한 가닥의 스테인리스(선),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 점차 보여 지는 형태(면), 그 과정 자체가 위에서 거론한 그 일치되는 접점을 잡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제작 초기과정에서는 즉흥성과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힘의 원점(인체, 부분 근육 등)으로부터 그어져 나오는 힘의 궤적, 무형의 힘이 유형으로 전환되면서 생성되는 그 아우라는 이 즉흥적인 감각을 잡아내

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때 생성되는 속도감, 유기적인 동태(動態) 등의 요인으로 작품은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신체극복을 위해 접하게 된 스포츠를 통해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에너지를 본인만의 감성으로 제작하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 그리고 작품분석으로 구성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배경

#### 1) 운동 에너지-기(氣)

질량이 서로 같은 물체가 다른 속력으로 운동할 경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빠른 물체일수록 크다.

운동이란 말은 ①물체의 위치 이동과 같은 물리적 용어, ②국민이나 시민(주민) 운동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용어, ③체육이나 스포츠와 같이 심신의 단련이나 수련을 목적으로 신체를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경우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본 논문에서는 ③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물리적인 운동에도 한정되지 않고 수련이나 단련의 목적도 갖는다. 수련이나 단련을 위해 움직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혹은 움직임의 리듬에 변화를 준다고든가 힘을 주는 방법을 바꾸기도 한다. 1)

기란 서양에서는 에테르(Ether)나 가스를 뜻하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이나 우주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에너지의 뜻을 나타낸다. 현실세계의 모든 존재물은 바로 이 기로 이루어져있으며, 곧 기는 존재물을 구성하는 원자적인 요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는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체는 기가 취합된 것이다.2) 동양철학의 주역(周易)에서는 “만물은 양기와 음기의 화합으로, 기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호흡이나 우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에너지의 뜻을 나타낸다.”3)고 한다. 모든 자연물에서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엄격히 존재

1) 운동 [運動](체육학대사전),2000,2,25 민중서관

2)프리조프 카프라, 이성범, 김용정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3) p.252

하는 것이나 그 기의 실제적 형상을 직접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공간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가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공기의 흐름으로서,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른다.

본인은 병약한 신체를 타고나, 어릴 적부터 잦은 질병과 씨름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 원초적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체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은 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점차 그 에너지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운동 과정 중 보다 강하게 축적되는 에너지와 건강해지는 심신 상태를 발견하면서 부터이다.

## 2) 선의 시간성과 속도감

선은 연속된 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점은 목적이 없으며 지향성이 없는 혼돈 상태이니 곧 태초이요, 태고, 그 자체이다”<sup>4)</sup> 따라서 점은 무질서한 현상으로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능성이 곧 선의 일부를 말하고 있다.

칸딘스키는 선이 표현하고 있는 동적개념을 기하학상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이란 움직이는 궤적이며, 점의 소산이다. 선은 점이 내포하고 있는 완전한 정지를 파괴하면서 운동에서 출생되는 것. 즉, 정적인 것으로 동적인 것으로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선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운동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변화하는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요소”<sup>5)</sup> 라고 하였다. 하버트 리드(Herbert

3) 프리조프 카프라, 이성범, 김용정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3) p.252

4) 고유섭,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서울 : 통문관, 1963, p.100

5) 하요 뉘히팅, 김보라 옮김, 『바실리 칸딘스키』, p.28

Read)의 “선은 요약된 것이며, 그 자체가 나타내는 것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다.”<sup>6)</sup> 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선은 이미 가시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주적 질서 속에 내제된 생명을 지닌 상징 기호임을 말하며, 화가는 체험의 한 방식으로 붓과 몸의 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선의 울동감과 자율성에 의해 생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운동으로 이루어진 선은 우리의 눈에 따라 신경질적인, 격노한,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조용한, 흥분한, 우아한 춤추는 듯한 선 등 어떤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sup>7)</sup>

본인은 선으로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나 방향의 힘을 표출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선은 장단, 각도,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표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함으로써 본인의 정신적 세계의 흔적을 남기며, 공간적 영역을 대한 다양한 감정상태 및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힘(에너지)이 센지 약한지를 짐작할 수가 없다. 힘(에너지)은 형상이 없다. 밀고 당기고 세기에 따라 힘(에너지)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도 그렇다. 시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음식이 상하고, 사람이 늙고 그러한 현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낀다. ‘시간이란 흐르는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진기로 걸어가는 사람을 연속적으로 찍어서 되돌려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력이 생기고 그 운동의 연속성이 한눈에 잡힌다. 움베르토 보치오니(Umberto Boccioni)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인 ‘공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단일 형태들’(Unique Forms of Continuity in Space, 1913, 청동, 111.2×88.5×40cm)

---

6) 하버드 리드 저, 김성희 옮김,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p.99

7)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옮김, 『조형 원리』, 1979, p.144

은 얼른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처럼 생겼다. 하지만 이 작품은 로봇이 아니라 걷고 있는 인체 조각이다. 휘날리는 옷자락의 유동적인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보치오니는 1912년에 '미래주의 조각:기술선언'을 발표하면서 조각을 시작했는데 1913년에 들어서면서는 걷고 있는 인체에 지나칠 정도로 치밀하고



(도판1) 공간 속에서의 연속적인 단일 형태들, 움베르토 보치오니, 1913년, 111.2x88.5x40cm 청동

더욱 과감한 운동의 표현을 시도했다.

'미래주의 조각 기술선언'에서 "기계의 엄격한 금속성을 나타내는 직선이 압도적이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휘날리는 옷자락이 마치 '흐르는 듯한 유동적인 곡선'으로 표현되었다. '직선'이 아니라 경쾌하고 유동적인 '곡선'과 힘찬 표현이 차라리 조화롭게 표현되었다. 이런 표현은 마치 화염과 같은 다리의 모습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걷고 있는 인체의 팔과 다리는 마치

바람에 펄럭이며 밀려나는 것처럼 돌출되기도 하고 꽤어 들어가기도 하면서 여러 단면으로 심하게 분할되어 있다.

이것은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감, 즉 시간 속의 운동성을 율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큰 부분을 여러 겹으로 겹쳐서 그리거나 조각한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했다.<sup>8)</sup>

이처럼 선의 형태나 다양한 표현 방식에 따라 운동감과 속도감을 표현할 수

8)부산일보, 2010년 8월26일, 34면

있다. 본인은 【작품1】 Energy-swimming1, 【작품5】 Energy-running 등과 같이 몇몇의 작품에서 운동감과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일부에 일종의 그림자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일부분은 곡선과 선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잔상이 되어 움직이는 이동방향에 따라 늘어지고, 이 그림자는 일종의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역할로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시선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함으로 작품 자체가 역동적인 속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 2. 작품의 표현방법

### 1) 인체형상

인체조각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각가들에 의하여 표현되어지고 면밀히 탐구되어져, 오늘날 조각 예술에 있어 큰 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체를 표현하는 것은 조각 예술 발달에 있어 기본이 되었으며 조각가의 심상 표현의 주제로서 관능적이며 이상적인 미의 모체로서 중요시 되었다. 인체 조각은 다른 어떤 종류의 형태보다도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 호기심 등이 강력하여 특별한 주제로 예술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9)

인체를 조각한다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인체로 재현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세계를 작품에 투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외적인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변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시도로 탄생된 변형은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다. 본인은 단순히 인체의 모방으로 제작된 작품이 아닌 의식적으로 변형을 줌으로서 본질을 담은 특수한 미적 효과를 기대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

---

9) 미학연구회 저, 『미학』, 문명사, 1987, p.265

였다. 그래서 본인 작품에서 보여 지는 인체는 오롯이 그 형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본인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에너지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인체 표현에 있어 해부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대상이 지나고 있는 역동적인 형태를 인체형상에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본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체형상은 시작하는 면은 구상적이고 구체화된 형상을 지니지만 작품의 끝으로 갈수록 흐트러진 형상으로 속도감과 시간성을 가진다. 또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속도감을 한층 높이는 방법으로 작품 전체를 연마하여 광택이 나게 하였는데 이는 실제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작품에 운동감을 실어 줄 수 있게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제작방법으로 본인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희열과 성취감 또한 작품 속에 내재 되어 인체의 형상이 없으나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작품도 제작할 수 있었다.

## 2) 스테인리스스틸 용접표현

본인은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조형물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으로의 유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조형물과 현대조각이 중국의 것 보다 앞섰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또한 학부시절 접했던 인체작업의 재료에서 견고성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철 작업과 같이 내구성이 있는 재료 영구적인 재료로 작품을 완성하게 되면 미래 조형물을 제작하게 되더라도 재료적인 면에서 수월하다고 느꼈다.

철의 등장은 조각의 전통적인 면이 사라지고 과학 기술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예술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철은 제련과정을 통해 생산되어지며 생산됨과 동시에 기성품이며 2차 가공과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 만으로도 고유의 용도를 가지는 기성품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한 철이 예술의 한 장르로 들어와 조각에 사용되어 예술가가 재료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어 실험적인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어졌다.<sup>10)</sup>

본인은 예술 작품으로 제작되어 온 다양한 철의 종류 중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하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한 작품은 표면의 상태와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반사하고 반영하거나 광택과 섬광으로 인해 작품 영역의 확산은 물론 생동감 있고 복합적인 환경을 담아낸다. 또한, 입체조각이 무겁고 정적인 상태로 공간을 차지하는데 반해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리면 생성과 리듬이 나타나는 물성을 표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인의 【작품1】 , 【작품4】 , 【작품5】 에서는 스테인리스스틸의 특징 중 빛을 반사하고 또한 반영하며 광택을 내는 효과 이외에 응집된 여러 갈래의 스테인리스 봉으로 인해 작품의 단단한 형태가 퍼져나가게끔 제작하였는데 이는 빛을 반영함과 동시에 공간 속에서 운동감을 표현해 내려고 의도하였다. 또한 가닥 가닥의 선을 휘어서 물결패턴을 만들거나 높이를 달리하여 실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작품이지만 속도감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작품들이 운동감과 속도감을 보여주기 위해 응집된 봉들이 분산되었다면 【작품3】 【작품6】 에서는 응집된 봉을 묶음으로 날림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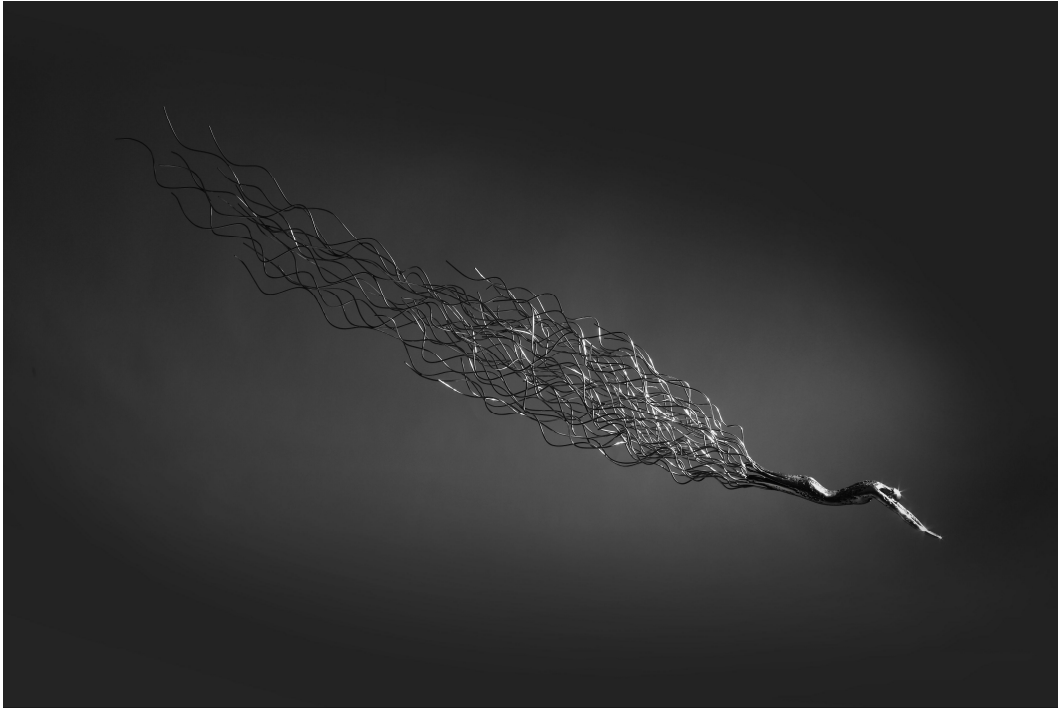
10) 김연봉, 『철을 소재로 한 형상 표현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6.8

인해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또한 두 작품에서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지면에서 떠오르는 형태로 제작하여 파장되는 듯한 갈래의 붓 이 없지만 운동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의 작품은 인체의 형상을 기본으로 가지지만 【작품2】 【작품7】에서는 인체의 형상 없이 운동감을 중심이 되어 작품이 표현되었다. 하지만 【작품2】의 역기형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붓의 손잡이 부분의 살짝 휘어진 부분으로 인해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기에 인체형상이 외적으로 보여 지지 않는다하여도 본인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를 용접하여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일종의 노동집약적인 반복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의 작품은 시간성을 함께 지니게 된다. 신속하게 의도된 형태를 구축하는 아르곤 용접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과도하게 반복된 작업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인내의 시간이 작품에 투영되어 정적인 작품이지만 앞서 말한 운동감과 속도감과 더불어 시간성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용접 중 의도된 자국, 비드를 포함하여 작품에 남은 모든 흔적들로 나타나며 이러 흔적들을 통해 본인의 작업 과정이 작품속에 담겨지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 3. 작품분석



【작품1】 Energy-swimming1, 184x28x28cm, stainless steel, 2015

## 【작품1】 Energy-swimming1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184x28x28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 제작방법-

1. 4mm 스테인리스 환봉을 이용하여 골조를 만든 뒤 3mm의 스테인리스 연선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하며 형태를 만들어간다.
2. 용접한 스테인리스 연선틈새에 용가봉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으로 녹여 채운 후 머리,손 부분을 그라인딩 하여 면으로 제작한다.
3. 뒤에 날리는 부분은 물을 드로잉 하듯이 스테인리스 연선이 뭉쳐지거나 풀어지며 선들은 중첩되게 용접한다.
4. 마지막으로 용접자국을 그라인딩 하여 샌딩 하고 전체적으로 광을 낸다.

### 작품설명-

“시작이 반이다” 어떤 일이든 마음먹고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일의 반은 성공이란 말이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히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본인, 타인에게 용기의 말을 하고 싶었다.

손, 머리 부분부터 강하게 공기를 가르며 뒤로 가면서 흐트러지고, 선을 흘림으로 수영의 운동감과 속도감, 시간을 표현하고 공기 중에서 힘을 잃고 사라지는 움직임의 여운을 표현하였다. 작품이 설치되어지는 벽과 조명과의 공간을 두어 그림자의 중첩으로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작품2】 Energy-weight lifting, 63x17x54cm, stainless steel, 마천석, 2015

## 【작품2】 Energy-weight lifting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63x17x54 cm

작품재료 : stainless, 마천석

### 제작방법-

1. 역도형태를 흙 작업하고 석고로 캐스팅을 한다.
2. 5mm 스테인리스 환봉을 원하는 길이로 재단하여 아르곤 용접 하였다. 역도 대는 밴딩을 하여 아르곤 용접 한다.
3. 부분적으로 스테인리스 연선틈새에 용가봉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으로 녹여 채운 후 그라인딩하여 면을 만든 후 전체적으로 광을 친다.
4. 좌대는 마천석을 사이즈 맞게 재단을 하여 광을 치고 설치할 부분을 구멍을 뚫고 에폭시로 작품과 좌대를 붙인다.

### 작품설명-

역도는 바벨(barbell)을 땅으로부터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이다. 지구의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한다. 본인은 힘이 점으로부터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미묘하지만 한계에 도달하면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아름다웠다.

작품은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 직선을 사용했으며 밑(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역도의 형태를 만들면서 부피를 키워 마치 물체가 튀어나올 것처럼 표현하였다.



【작품3】 Energy, 258x45x125cm, stainless steel, 2015

### 【작품3】 Energy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258x45x125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 제작방법-

1. 접영 형태를 흙 작업하고 석고 캐스팅을 한다.
2. 3mm 스테인리스 연선으로 파도, 물 드로잉 하듯이 규칙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아르곤 용접 한다.
3. 내부 골조를 만든 후 그라인딩하여 전체적으로 광을 낸다.

#### 작품설명-

어릴 적 산 지대에서 생활한 나는 사춘기가 돼서야 바다를 보았다. 대부분 파도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파도의 에너지는 너무나 웅장하였다. 마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이 오는 파도는 접영을 연상케 한다. 접영은 고요한 물에서 튀어 오르며 파장을 일으키며 돌진하는 형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 튀어 나오는 부분은 사람을 형상화 하였고 표면은 파도, 물의 느낌을 불륨을 줘서 만들었다.

작품은 벽 속에 설치하여, 드로잉이 입체가 되듯,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주하는 조각을 표현 하였다. 표면에 아르곤 용접을 인위적으로 용접하여 용접 자국을 물방울 효과를 내었다.



【작품4】 Energy-foot, 11x20x60cm, stainless steel, steel, 2015

#### 【작품4】 Energy-foot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11x20x60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steel

제작방법-

1. 발 형태를 흙 작업하고 석고 캐스팅을 한다.
2. 3mm 스테인리스 연선으로 발 부분을 묘사하다가 위로 다리부분으로 올라가면서 규칙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알콘용접 한다.
3. 발 부분은 그라인딩 하여 면을 만든 후 그라인딩 하여 전체적으로 광을 낸다.

작품설명-

발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기관으로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동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 몸무게 평균 60kg의 무게를 두발로만 지탱해주는 에너지, 이동시 충격을 흡수해준다. 발의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체조선수 발에 형상화 하였다. 발끝 하나로 아름답고 우아한 자세를 뽐어낸다. 작품은 평균대 끝에 선 발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안정된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5】 Energy-running, 100x30x64cm, stainless steel, 마천석, 2015

## 【작품 5】 Energy-running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100x30x64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마천석

### 제작방법-

1. 달리기 하는 사람을 흙 작업하고 석고로 캐스팅을 한다.
2. 석고가다에다 5mm 스테인리스 환봉을 원하는 길이로 재단하여 아르곤 용접 하였다.
3. 몸체 부분 부분 스테인리스 연선틈새에 용가봉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으로 녹여 채운 후 그라인딩 하여 면을 만든 후 전체적으로 광을 친다.
4. 좌대는 마천석을 사이즈 맞게 재단을 하여 광을 치고 설치할 부분을 구멍을 뚫고 볼트로 조여 작품하고 좌대를 조립한다.

### 작품설명-

【작품 5】는 【작품 1】와 작품의 표현 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으나 외부형태 표현을 달리 하였다. 직선을 사용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시선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함으로 작품 자체가 역동적인 속도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길게 늘어진 선들은 앞으로 달려 나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멈춰 서지 않는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몸통 면으로 강조하여 달려 나가는 힘을 실어주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 6】 Energy-swimming2, 42x9x124cm, stainless steel, 2015

## 【작품 6】 Energy-swimming2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42x9x124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 제작방법-

1. 4mm 스테인리스 환봉을 이용하여 골조를 만든 뒤 3mm의 스테인리스 연선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하며 형태를 만들어간다.
2. 용접한 스테인리스 연선틈새에 용가봉을 사용하여 아르곤 용접으로 녹여 채운 후 머리,손 부분을 그라인딩 하여 면으로 제작한다.
3. 3mm 스테인리스 연선으로 파도, 물 드로잉 하듯이 규칙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아르곤 용접 한다.
4. 내부 골조를 만든 후 그라인딩 하여 전체적으로 광을 낸다.

### 작품설명-

【작품 6】은 【작품 1】과 【작품 5】와 달리 시작이 아니라 시작 하고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과정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인데 ‘무엇’에 대한 사항보다는 ‘어떻게’에 대한 사항을 강조한다. 수영은 자기만의 코스로 목적지를 향한다. 몸통 면으로 강조하여 물을 가르며 나가는 힘을 표현하였고 뒤에 길게 늘어진 물의 파장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여 시간과 과정을 표현하였다.



【작품 7】 Energy-boxing, 39x30x86cm, stainless steel, 2015

## 【작품 7】 Energy-boxing

제작년도 : 2015년

작품크기 : 39x30x86 cm

작품재료 : stainless steel, 마천석

### 제작방법-

1. 글러브를 흙 작업하고 석고로 캐스팅을 한다.
2. 3mm 스테인리스 연선으로 글러브 부분을 묘사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규칙적으로 선들이 풀어지며 중첩되게 아르곤 용접 한다. 글러브 부분은 그라인딩 하여 면을 만든 후 그라인딩 하여 전체적으로 광을 낸다.
3. 마천석을 깨진 것처럼 인위적인 효과를 내고 설치할 부분을 구멍을 뚫고 에폭시로 작품하고 좌대를 붙인다.

### 작품설명-

권투는 공격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 【작품 7】은 【작품 2】와 같이 본인은 힘이 점으로부터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분산 되어 있던 힘이 하나로 이루어져 공기를 가르며 오는 에너지는 아름다웠다. 현시대 사람의 방향성과 목표에 비유하여 작품을 하였다.

글러브 부분을 강조하여 돌을 부셔버리는 힘을 표현하였고 휘날려지는 선들을 통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역동적 에너지를 표현 하였다. 깨진 돌 좌대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은 느낌으로 표현 하였다.

### Ⅲ. 결 론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삶을 살아가며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리고 자연을 움직이는 근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 근원의 힘은 세상만물 어디에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일상에서 겪는 에너지를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느꼈던 본인의 감정과 관련하여 작품을 구상할 수 있었다.

본인 작품은 스테인리스 봉이 선이라면 그것을 이어주는 비듬과 같은 용접기법은 점이 되어 선을 잇고 그 선들이 합쳐져 면이 되어 작품이 구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본인의 유년시절 갈망했던 건강한 육체를 대변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소재에 에너지를 담은 작품으로 제작되어졌다. 그렇게 제작된 작품은 본인이 작품을 대하는 사고와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본인의 감성과 의지로 획일화된 형상에서 벗어난 인체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정적인 작품이지만 연마하여 광택을 가진 유동적인 느낌의 선들이 뭉치고 풀리면서 속도감과 시간성을 담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본인에게 역동적인 에너지를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율동적인 선의 변화함에 있어서 패턴화 되는 면이 없지 않았으며, 또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형태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어 이는 개선해야 할 또 다른 연구과제이다.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방법과 기법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며 작업 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의 감성적 영감(운동)을 인체표현이 아닌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작품표현에 관해 연구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번역본》

- 1) 프리조프 카프라, 이성범, 김용정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3) p.252
- 2) 하요 뒤히팅, 김보라 옮김, 『바실리 칸딘스키』, p.28
- 3) 하버드 리드, 김성희 옮김, 『서양 현대조각의 역사』, 시공사, 1998, p.99
- 4) 데이비드 라우어, 이대일 옮김, 『조형 원리』, 1979, p.144
- 4) 고유섭, 『한국미술사 및 미학논고』, 서울 :통문관, 1963, p.100
- 5) 미학연구회 저, 『미학』, 문명사, 1987, p.265

### 《홈페이지 및 기타》

- 1) 운동 [運動] (체육학대사전, 2000. 2. 25., 민중서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2790&cid=42876&categoryId=42876>
- 2) 작품 속 속도감 & 역동성은 “이색적이며 실험적” |작성자 부산여성뉴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0082500017>
- 3) 「철을 소재로 한 형상 표현연구」, 김연봉,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6.8

# **ABSTRACT**

## **A study of the dynamic image expression through movement -around my Works-**

KIM, Ryong-ho

Public Art Major

Graduated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rtists living reality, to the relevant parties around the experience in that, to mobilize the senses and imagination of living of their inner surface, will express their work. In addition, so it fabricated works, sometimes to reflect the state of their own instinctive life.

Man is born in nature, live the life, constitutes a part of nature, it has signed a mutual relationship. Himself tried to think about the power of the source to move the natural. And, when attempting to interpret a simple structure that divergence its source is the accumulation, I felt again surprise to the constantly extended the energy itself. Work of the person is, started working from praise of the fundamental forces of energy. And it

became the kinetic energy in the form of energy that can be contacted more easily in life be fabricated with priority. Rather than the energy that humans themselves can be felt in the machine to the act of movement of the energy put out diverging, it was to try to put the primordial forces to work.

In this paper, in the center of the work of the person that was announced in 2015, research the background and representation method of production of works, one that was analyzed as a "movement" is to shape the act, also, because of the "movement" the energy that is felt and expressed in a flow of metal wire. To center the work that has been published under the title "energy of dynamism", it was for a total of three in the following manner.

Chapter I Introduction, in the work of the person, to study the human of fundamental energy, by welding a line, described the research methods of the dynamic energy of expression.

Chapter II chapter this paper, describe the modeling features of the sense of speed and work through the kinetic energy and the line, was studied analysis of the welding representation of to express the dynamic form through the human body shape stainless steel.

In the conclusion of the III Chapter, to organize the contents of this paper, said the research agenda of the direction of future work.